

보도자료

글라슈테, 2025년 4월

1815

랑에 운트 죄네의 전통에 따라 절대 멈추지 않는 시계.

새로운 1815는 독특한 방식으로 절대 멈춰서지 않는다는 랑에 운트 죄네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이 시계는 전통적인 디테일을 두루 갖추어 과거를 계승함과 동시에 새롭게 개발된 무브먼트가 장착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750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로 출시되는 1815는 완벽을 추구했던 글라슈테 워치메이킹의 선구자,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Ferdinand Adolph Lange)의 시각으로 완성되었으며, 제품명은 그의 출생 연도를 의미합니다.



750 화이트 및 핑크 골드로 출시되는 새로운 1815

완벽한 형태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는 정확성, 기능, 우아한 품격이 조화를 이루는 포켓 위치를 제작하겠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1815는 이같은 전통에 따라 우아하고 소박한 비율의 케이스가 돋보이는 750 핑크 또는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직경은 34mm, 두께는 단 6.4mm에 불과한 디자인은 더욱 절제된 스타일의 클래식한 쓰리핸드 시계를 원했던 시계 애호가들의 열망을 충족시킵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1815는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로 활약합니다.

살짝 다른 높이로 제작된 슬림한 디자인의 베젤 안에는 디테일을 향한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다이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차 선로 형태의 미닛 스케일, 아라비아 숫자, 6시 방향에 위치한 서브 세컨즈 다이얼은 랑에 운트 죄네의 초기 포켓 위치를 연상시킵니다. 블루 컬러의 배경에서 회전하는 랜릿 형태의 핸즈는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어 1815의 클래식한 매력을 한층 강조합니다.

화이트 골드 모델은 블루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며, 핑크 골드 버전은 레디시 브라운 스트랩과 함께 출시됩니다. 더불어 폴리싱 처리된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 소재의 프롱 버클에서도 장인 기술이 돋보이는 탁월한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1815를 구동하는 매뉴팩처 칼리버 L152.1

75번째 매뉴팩처 칼리버

새롭게 개발된 매뉴팩처 칼리버 L152.1의 미학은 특유의 디자인 형태와 전통적인 무브먼트 장식이 돋보이며, 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한 밸런스 콕과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가 1864년에 도입한 쓰리쿼터(3/4) 플레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브먼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는 글라슈테 리빙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스크류로 고정된 4개의 골드 샷통, 베어링 주얼, 열 착색 처리된 블루 스크류 고정 디테일은 컬러풀한 포인트를 더합니다.

새로운 1815에는 매뉴팩처 재건 이후 75번째로 개발한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 진동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새로운 진동 시스템과 자체 제작된 대형 스크류 밸런스 덕분에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전체에 걸쳐 탁월한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개발 디렉터 앤토니 드 하스(Anthony de Haas)는 “새로운 1815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더욱 우아한 비율의 타임피스를 제작하면서도 간결함과 기능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랑에 운트 죄네의 장인들은 케이스 직경이 보다 작아졌음에도 72시간의 더욱 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돌아가는 트레인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랑에 운트 죄네(A. Lange & Söhne)

드레스덴의 워치메이커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는 1845년 자신의 워치 매뉴팩처를 설립하면서 작센주(Saxony) 정밀 워치메이킹 분야의 토대를 구축했고, 이후 랑에 운트 죄네의 고급 회중시계는 전 세계 컬렉터들이 가장 탐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회사를 몰수당한 후, 랑에 운트 죄네의 명성은 거의 사라지는 듯했으나, 1990년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의 증손자 발터 랑에가 랑에 운트 죄네를 재건하였습니다. 오늘날 랑에 운트 죄네에서는 오직 골드와 플래티넘 등의 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연간 단 몇천 점 내외의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제작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무브먼트 역시 매뉴팩처 내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장식되고 조립되어 랑에 운트 죄네 시계만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1990년부터 랑에 운트 죄네는 75개의 매뉴팩처 칼리버를 개발하여 전 세계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데이트를 탑재한 최초의 모델로 정기 생산된 LANGE 1과 정확한 점핑 플레이트가 도입된 ZEITWERK 모델은 랑에 운트 죄네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컬렉션으로 손꼽히며, ZEITWERK MINUTE REPEATER,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 TRIPLE SPLIT과 같은 우수한 컴플리케이션은 워치메이킹의 전통적인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랑에 운트 죄네 매뉴팩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2019년, 랑에 운트 죄네는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ODYSSEUS와 함께 매뉴팩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프레스 문의

Arnd Einhorn, 글로벌 기업 커뮤니케이션 & 제품 PR 책임자
전화번호: +49 (0) 35053 440 | 이메일: presse@lange-soehne.com

온라인 정보

alange-soehne.com | facebook.com/langesoehne | youtube.com/user/alangesoehne
instagram.com/alangesoehne | [#alangesoehne](https://twitter.com/alangesoehne) | [#lange1815](https://twitter.com/lange1815) | [#neverstandstill](https://twitter.com/neverstandstill) | [#watchesandwonders2025](https://twitter.com/watchesandwonders2025) | [#WWG25](https://twitter.com/WWG25)

에셋 다운로드

press.alange-soehne.com

1815

무브먼트	랑에 운트 죄네 매뉴팩처 칼리버 L152.1, 수동 와인딩, 랑에 운트 죄네의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따라 제작, 수작업으로 장식 및 조립, 5개 위치에서 정밀도 조정,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저면 실버 소재의 플레이트 및 브릿지,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된 밸런스 컵	
무브먼트 부품 수	171개	
주얼 수	21개	
스크류로 고정된 골드 샷통 수	4개	
이스케이프먼트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진동 시스템	충격 방지 스크류 밸런스, 탁월한 기능의 자체 제작 밸런스 스프링, 시간당 21,600회의 진동수, 측면의 세트 스크류와 휘플래시 스프링을 장착한 정확성 비트 조정 시스템	
파워 리저브	완전히 와인딩했을 때 72시간	
기능	시간 및 분 표시, 스톱 세컨즈 기능이 탑재된 서브 세컨즈 다이얼	
작동 요소	시간 조정 및 와인딩을 위한 크라운	
무브먼트 크기	직경: 28.1mm, 두께: 2.9mm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백	사파이어 크리스탈(모스 경도 9)	
레퍼런스	220.028	220.037
케이스	750 화이트 골드	750 핑크 골드
케이스 크기	직경: 34.0mm 두께: 6.4mm	
다이얼	925 실버, 블루	
핸즈	750 골드	

스트랩	핸드 스티치 장식의 앨리게이터 가죽, 블루	핸드 스티치 장식의 앨리게이터 가죽, 레디시 브라운
버클	750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프롱 버클	750 핑크 골드 소재의 프롱 버클